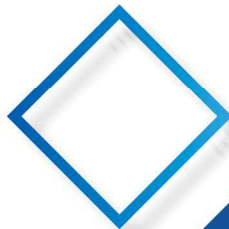


R&I TRENDS

EU R&I 주간 브리핑

2025.05.14



Contents

▶ EU 연구혁신 정책 동향

- ① EU 부집행위원장, 새로운 경쟁력 기금에 연구혁신 포함 가능성 시사(5.12)
- ② 유럽의회, 차기 EU 장기예산에 연구혁신에 대한 과감한 투자 촉구(5.8)
- ③ 집행위, 유럽 경쟁력을 위한 기술 인프라 컨퍼런스 개최(5.8)
- ④ EU, 기술 인프라에 최대 160억 유로 추가 투자 필요(5.13)
- ⑤ EU 생명과학 전략 발표 앞두고 통합적 접근 필요성 대두(5.13)
- ⑥ 유럽 이사회, 유럽 공동 학위 5개년 로드맵 합의(5.13)

▶ EU 공모 현황 및 보고서 등

- ① 2025년 MSCA PF, 4억 430만 유로 지원 예정(5.8)
- ② 호라이즌 유럽의 낮은 성공률과 높은 준비 비용에 연구자들 “신청 부담 크다”(5.12)
- ③ 집행위, ERC 과학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 공모(5.12)
- ④ (SB펀딩레이더) 디지털 헬스 관련 주요 공고(5.13)

▶ EU 연구성과

- ① (성공사례) 전 세계 해양 과학을 위한 첨단 연구선 플랫폼
- ② (연구모음) 지속가능하고 기후 탄력적인 양식업 및 수산업

1. EU 연구혁신 정책 동향

1 EU 부집행위원장, 새로운 경쟁력 기금에 연구혁신 포함 가능성 시사(5.12)

- EU 집행위 세주르네 부집행위원장은 집행위가 구상 중인 경쟁력 기금(Competitiveness Fund)에 연구혁신 부문이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시사
 - 유럽 집행위 새로운 경쟁력 기금에 차기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P10)이 흡수될지 여부에 대해 수개월 동안 추측이 난무한 가운데, EU 집행위 세주르네 부집행위원장(번영 및 산업 전략 담당)은 지난 5월 12일 경쟁력 기금에 연구혁신이 포함될 것이라고 발표
 - 세주르네는 집행위가 주최한 행사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금 지원이 분산되어 있다”라며 “인공지능에서 우주, 청정 기술, 생명공학, 특히 혁신과 연구에 이르기까지 전략적 부문에 대규모 투자를 하기 위해 이를 단일 투자 역량으로 재편해야 한다”라고 말함
 - 세주르네가 기금이 “연구부터 산업 생산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전 생애를 아우르는 새롭고 일관된 구조”가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을 통해 연구와 혁신이 경쟁력 기금에 포함되어 있음이 분명하게 드러남
 - 경쟁력 기금은 보조금, 대출, 지분 투자, 공공 시장 등을 통해 운영될 것이며, 특히 민간 자금 동원이 핵심 과제로 제시됨
 - 이를 위해 2024년 말까지 약 3,000억 유로의 투자를 유치한 InvestEU 이니셔티브를 통합하거나 확장할 예정임을 밝힘(이 중 3분의 2는 민간 부문에서 조달)
 - 같은 행사에서 폴란드 재무부 차관 카르보닉은 핵심 기술에 자금을 조달할 때 민간 투자자가 감수할 수 있는 위험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으며, 유럽과 국가 차원의 금융 수단을 조정할 필요성도 함께 제기

출처

<https://sciencebusiness.net/fp10/new-competitiveness-fund-may-include-research-and-innovation-sejourne-says>

② 유럽의회, 차기 EU 장기예산에 연구혁신에 대한 과감한 투자 촉구(5.8)

-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차기 EU 장기예산(MFF)에서 FP10을 포함하고 경쟁력 기금 제안에 반대하는 보고서를 채택
 - 유럽의회는 차기 EU 장기예산(MFF)에 독립적인 연구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P10)을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고 여러 프로그램을 통합하는 집행위의 경쟁력 기금(Competitiveness Fund) 제안에 반대하는 보고서를 5월 7일 스트라스부르 본회의에서 채택
 - 보고서는 비구속적 문서이나 국방, 안보, 경쟁력, 위기 대응에 중점을 둔 MFF 비전을 제시
 - 보고서는 Draghi 보고서(2025~2030년 동안 연간 최소 7,500~8,000억 유로의 추가 투자 제안) 및 Niinistö 보고서(전체 EU 예산의 20% 이상을 국방과 위기 대응에 배정 권고) 등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고 있으며 하고 있으며, 향후 10년간 국방 투자에 5,000억 유로를 투자하겠다는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의 계획을 바탕으로 함
 - 유럽의회 의원(MEP)들은 혁신과 국방이 긴밀히 연관되어 있으며, 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
 - 예산위원회 보고서 공동 작성자인 Mureşan은 경제력이 유럽 안보의 핵심이라고 주장하며, 단순히 기존 프로그램을 경쟁력 기금으로 재포장하는 것은 실질적 효과가 없다고 비판
 - 최근 Science|Business 인터뷰에서 Mureşan과 Tavares 의원들은 차기 MFF에서 독립된 연구 프로그램을 유지할 것을 지지하며, 경쟁력 기금이 기존의 프로그램을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수단이어야 한다고 주장
 - 유럽의회는 최근 산업연구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서에 대한 본회의 표결에서 FP10의 독립성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밝혔으며, 우수 제안서의 최소 75% 이상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최소 2,200억 유로의 예산 배정을 요구(호라이즌 유럽 중간평가 결과 현재 우수 제안서의 30%만이 자금 지원을 받음)

- 예산위원회의 이번 MFF 보고서가 채택됨에 따라 FP10의 독립 예산화 입장이 강화되었으나, 두 보고서 모두 집행위나 EU 이사회에 구속력을 갖지 않음
- 집행위는 2025년 7월 MFF 제안서를 발표할 예정이며, 의회 및 EU 이사회와의 협상은 2025년 가을까지 연장되어 2027년 말까지 이어질 전망

출처

<https://sciencebusiness.net/eu-budget/parliament-calls-bold-investment-research-and-innovation-beyond-2027>

③ 집행위, 유럽 경쟁력을 위한 기술 인프라 컨퍼런스 개최(5.8)

- 유럽연합 집행위는 지난 5월 6~7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기술 인프라에 관한 고위급 컨퍼런스를 개최
 - ※ 기술 인프라는 유럽의 기술 주권, 산업 경쟁력, 혁신 생태계에 필수 요소로, 산업 혁신과 기술 상용화를 가속화함
 - 컨퍼런스는 2025년 유럽 연구혁신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폴란드 EU 이사회 의장국 및 폴란드 연구 네트워크(Lukasiewicz Research Network)와 공동으로 개최됨
 - 컨퍼런스에는 정책입안자, 산업계, 연구기관, 학계, 스타트업 등 유럽 전역의 관계자들이 참석
 - 논의는 기술 인프라가 신기술 개발·테스트·검증을 위한 시설·장비·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하고, 이를 통해 유럽의 산업 경쟁력, 회복 탄력성, 혁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춤
- 기술 인프라가 혁신 격차를 해소하고, 친환경 및 디지털 기술을 구현하며, 유럽 산업 경쟁력을 지원하는 데 필수적임을 강조
 - EU 기관, 국가 부처, 산업계 리더, 금융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정책 패널과 산업-연구 간 성공적 협업 사례를 발표하는 세션이 진행됨
 - 또한 세부 주제 세션에서는 자금, 거버넌스, 중소기업(SME) 및 스타트업 접근성, 연구 인프라 시너지 등 다양한 주제를 탐구

- 참가자들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인프라 접근성 향상, 효과적이고 스마트한 인프라 거버넌스 구축, 전 유럽에 걸친 전략적 투자, Choose Europe 이니셔티브를 비롯한 우수 인재 유치 및 유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기술 인프라 생태계 강화를 위한 총체적 접근의 필요성에 대해 공통된 견해를 보임
- 컨퍼런스에서 논의된 내용은 향후 유럽 연구 및 기술 인프라 전략 수립에 반영될 예정

출처

https://research-and-innovation.ec.europa.eu/news/all-research-and-innovation-news/technology-infrastructures-spotlight-strategic-asset-european-competitiveness-2025-05-08_en

4 EU, 기술 인프라에 최대 160억 유로 추가 투자 필요(5.13)

- 연구에 따르면, EU는 기술 인프라가 혁신과 경쟁력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2030년까지 130억~160억 유로의 추가 투자가 필요함
 - 연구 공동 저자이자 테크노폴리스 그룹의 Viscido는 기술 인프라 컨퍼런스에서 유럽투자은행(EIB)를 위해 작성된 연구 결과를 발표
 - 해당 금액은 현재 투자 수준보다 약 200% 증가한 규모이며, AI, 양자, 항공, 우주, 국방, 로봇 분야에서 자금 수요가 특히 클 것으로 예상됨
 - 자금 조달 방식도 변화해야 하는데, 현재 기술 인프라 주요 재원은 경쟁형 보조금(37%), 기본 공적 자금(28%), 기관 자체 재원(21%)이 주를 이루며, 금융 상품(3%)과 민간 자금(1%)의 비중은 매우 낮음. 향후에는 민간 투자 및 금융 상품 확대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EU 집행위는 기술 인프라를 연구 인프라와 동등한 정책 우선순위로 격상하고 두 인프라 간 시너지 창출을 도모할 계획
 - 연구 인프라의 계획, 조정, 지원은 오랫동안 EU 정책의 일부였으나, 기술 인프라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져 왔음
 - 기술 인프라는 기업이 신기술을 개발, 테스트, 확장하는 데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의미하며, 혁신 비용 절감과 유럽의 기술 주권 확보에 기여함

- 대표 사례로, 초대형 AI 모델 학습을 위한 AI 기가팩토리 구축이 있으며, EU는 이에 200억 유로를 투입할 계획임
- 기술 인프라 전략은 다섯 가지 핵심 과제를 포함할 것: 정책 및 자금의 단편화 해소, 인프라 간 협력 확대, 중소기업 등 기업 대상 인프라 접근성 향상, 인프라 거버넌스 체계 구축, 혁신 인재 유치 및 육성
- 집행위 연구혁신총국 국제협력 담당 Russo 국장은 현재까지 EU 차원의 실질적인 조치나 자금 조달에 대한 체계적 접근 방식이 부재한 상황임을 지적
- EIB는 기술 인프라 자금 지원에 나설 수 있으며, 수요 창출 등 간접적 역할이 가능하다고 밝힘
 - 대기업에 대출을 제공하고 투자 기금을 지원하는 EIB는 기술 인프라 자금 지원 역할 수행 의지가 있음을 밝힘(공식적 정책 위임 필요)
 - 현재 EIB는 InvestEU와 기술 이전 기금을 위한 지분 투자 등을 통해 기술 인프라를 지원할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지원은 대부분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대한 대규모 투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법적 구조나 규모 부족으로 개별 기술 인프라에 직접 투자하기는 어려움
 - 그러나 EIB는 기술 인프라에 대한 수요 창출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 간접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언급

출처

<https://sciencebusiness.net/news/r-d-funding/research-infrastructures/eu-ambition-technology-infrastructures-has-eu13-16-billion-price>

5 EU 생명과학 전략 발표 앞두고 통합적 접근 필요성 대두[5.13]

- EU는 6월 생명과학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해관계자들은 유럽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자금 지원 방안을 제안 중임
 - 스톡홀름 트리오(3개 대학 연합)는 대규모 연구협력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을 네 가지 전략 과제 영역으로 재편하고, 그중 모든 생명과학을 하나의 주제로 포괄할 것을 제안
 - 스톡홀름 트리오 수석 고문 Andree는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며, 생명과학은 보건 분야보다 더 광범위하며 생명공학, 식품, 농업, 환경 분야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
 - Andree는 FP10에서 생명과학 클러스터가 조성된다면 예산 규모는 약 350억 유로가 될 것으로 예상(FP10에 총 2,000억 유로가 배정될 경우)
 - 또한, 생명공학 산업계는 '유럽 바이오테크 이니셔티브(Biotech for Europe Initiative)'를 제안하고 있음. 이는 생명공학 분야의 혁신 확장 및 지식 이전을 지원하고 포괄적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여 현재 정책의 분절성을 해결하기 위함
 - 최근 집행위 향후 전략 관련 협의에서 공통된 목소리는 생명과학 분야에 대한 통합적이고 전체적인 접근 방식의 필요성임
- 연구기관들은 기초연구와 연구 인프라 강화를 위해 ERC 및 관련 프로그램 예산 증액과 FP10의 유연한 구조 마련을 촉구하고 있음
 - 한편 연구기관들은 전략이 혁신에만 초점을 맞추고 기초연구를 소홀히 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음
 - 집행위가 유럽연구위원회(ERC) 기초연구 예산을 두 배로 증액하고, EIC Pathfinder 및 Transition 프로그램, 마리퀴리 프로그램 등의 예산을 증액할 것을 요청
 - FP10에서는 연구자가 주제를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소규모 프로젝트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음

- 생명과학 최첨단 기술 활용을 위해 필요한 연구 인프라에 대한 전략적 지원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
- 전략의 핵심은 단순한 예산 확대가 아니라 규제 조율, 지식 전환과 자금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계획 마련임
- 현재 EU 회원국별 규정과 GDPR(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 해석이 달라 연구와 혁신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조율된 데이터 규칙 수립은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임
- Andree는 연구 커뮤니티가 규제 체계를 논의할 때 지속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규제는 연구와 제품개발을 구분하는 유연한 규제 환경이 중요하다고 말함
- 산업계는 원활한 의약품 규제와 신약 승인 기간 단축을 주요 과제로 지목하며, 산업협회 EuropaBio 수석 매니저 Samson은 EU가 생명과학 강국이 되려면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

출처

<https://sciencebusiness.net/news/r-d-funding/european-life-sciences-strategy-fosters-hope-more-cohesive-policy>

⑥ 유럽 이사회, 유럽 공동 학위 5개년 로드맵 합의(5.13)

- EU 교육부 장관들은 공동 유럽 학위(Joint European Degree) 도입 여부 결정을 위한 5개년 로드맵에 합의함
- 로드맵은 국경 간 고등교육 협력을 강화하고, 유럽 학위의 매력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
- 5월 12일 회의에서 장관들은 3단계 추진 계획을 수립. (1단계: 2025~26) 공동 유럽 학위 라벨 준비 완료, (2단계: 2026~28) 공동 학위 라벨 도입 및 평가, (3단계: 2029) 본격적인 공동 유럽 학위 결정
- (1단계) 첫 단계로 이사회는 집행위에 유럽단일교육공간(European Education Area) 산하에 '정책 실험실' 설립해줄 것을 요청. 이 실험실은 회원국 정부 대표로 구성되며 공동 유럽 학위 라벨을 위한 포괄적 프레임 워크 수립을 담당할 것

- 이사회는 정책 실험실이 유럽 학위 라벨 취득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또한 개발해야 한다고 설명
 - (2단계) 이후 집행위와 회원국은 2026~2028년 동안 공동 학위 라벨을 시행해야 하고, 정책 실험실과 집행위는 라벨이 범국가적 협력과 경쟁력 강화 및 이동성 향상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진행 상황을 평가해야 함
 - (3단계) 마지막 단계로 이사회는 분석을 참고하여 공동 유럽 학위의 장기적 이행을 결정하고 집행위에 다음 단계를 제안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 이사회는 공동 학위 라벨이 유럽 고등교육을 발전시킬 잠재력을 지닌다고 강조
- 이사회는 “이러한 공동 학위 제도가 EU 고등교육의 미래를 위한 새 길을 열어줄 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 세대의 개인적, 사회적, 직업적 발전과 적극적 시민 의식을 함양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라며 강조
 - 이사회는 고등교육기관이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면, 고등교육 협력을 촉구
 - 이사회는 유럽 공동 학위를 위한 진전은 추가적 행정 부담을 피하고 공동의 단계적 접근 방식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
 - 회원국들이 자격 인정 절차를 지속적으로 승인하고, 모든 고등교육 기관에 대한 평가를 위한 공동 프레임워크 개발을 모색할 것을 권고
- ※ 라벨 부여 기준에는 최소 두 개 이상의 EU 회원국에서 최소 2개 이상의 기관이 해당 자격을 제공해야 하고, 공동 프로그램의 품질 보증을 위한 유럽 접근방식에 따라 평가되어야 함. 또한 학생들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이동성을 제공하고, 유럽 고등교육공간(EHEA)의 핵심 가치를 준수해야 함

출처

<https://www.researchprofessional.com/0/rr/news/europe/universities/2025/5/Council-agrees-five-year-roadmap-for-joint-European-degree.html>

2. EU 공모 현황 및 보고서 등

1 2025년 MSCA PF, 4억 430만 유로 지원 예정(5.8)

- EU는 2025년 마리퀴리 액션(MSCA) 포닥 펠로우십(PF) 공모로 총 4억 430만 유로의 예산으로 약 1,650개 프로젝트 지원 예정
 - ※ 공고번호: HORIZON-MSCA-2025-PF ([링크프로그램 확인](#))
 - 2025년 MSCA PF 공모가 5월 8일 개시되었으며, 9월 10일 마감 예정
 - 유럽 펠로우십에 3억 4,370만 유로, 글로벌 펠로우십에 6,060만 유로 지원 예정
- 포닥 펠로우십(PF)은 박사학위 소지자에게 국제적, 학제간, 산업간 이동성 기반의 경력 개발 기회를 제공
 - 포닥 펠로우십 유형은 유럽 펠로우십과 글로벌 펠로우십 두 가지로 구분됨
 - 유럽 펠로우십은 국적에 관계없이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또는 EU 내 기관에서 최대 24개월간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자를 대상으로 함
 - 글로벌 펠로우십은 EU 및 준회원국 국민 또는 장기 체류자가 제3국 기관에서 12~24개월 연구 후 유럽 내 기관에서 12개월 복귀 연구를 수행할 연구자를 대상으로 함
 - 동 프로그램은 연구자들이 학계 외의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장려하며, 펠로우십 종료 후 유럽 비학술 기관에서 6개월 추가 근무를 요청할 기회도 제공
 - 포닥 펠로우십 지원자는 박사학위 취득 후 최대 8년 이내 연구 경력을 보유해야 하며, 호스트 기관은 대학, 연구소, 기업, 공공기관, 병원, NGO 등일 수 있고, EU 또는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에 소재해야 함

출처

<https://marie-sklodowska-curie-actions.ec.europa.eu/news/msca-opens-eu4043-million-call-for-postdoctoral-fellowships>

② 호라이즌 유럽의 낮은 성공률과 높은 준비 비용에 연구자들 “신청 부담 크다” [5.12]

- 호라이즌 유럽 공모의 낮은 성공률과 높은 준비 비용으로 인해 많은 연구자들이 신청 자체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 4월 발표된 EU 집행위의 프로그램 중간평가에 따르면 신청자의 44%가 신청 비용에 대해 신청 노력 대비 성공 가능성이 낮아 불균형하다는 의견을 제기
 - 호라이즌 유럽 평균 성공률은 16.4%로 호라이즌 2020(약 12%) 대비 개선되었지만, EIC 등 일부 프로그램에서는 4% 수준에 불과함
 - 대부분의 신청자들은 신청 준비에 드는 노력이 프로그램 간 큰 차이가 없다고 말함
 - 컨소시엄 코디네이터는 평균 36~45일, 파트너 기관은 16~25일의 인력 투입이 필요. ERC와 EIC와 같은 단일 수혜자 프로젝트의 경우 평균 36~45일의 준비 기간이 소요됨
 - 이를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면 평균 지원 비용은 21,000~32,000 유로로 추산됨
- 호라이즌 유럽 전체 지원자의 절반이 기관 내 전담 부서의 도움을 받았고, 혁신 프로젝트에서는 외부 컨설팅 활용 비율이 특히 높았음
 - 전체 지원자의 50%는 기관 내 전담 부서로부터, 20%는 NCP, 17%는 외부 컨설팅 업체의 도움을 받음
 - 특히 EIC Accelerator 지원자의 67%는 외부 컨설팅을 활용했고, 보건 분야 프로젝트에서도 28%가 컨설팅에 의존
 - 연구 프로젝트보다 혁신 프로젝트(활용률 24~36%)에서 컨설팅 활용률 더욱 높았는데, 이는 혁신 프로젝트 지원 시 시장과 규제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보임
 - 컨설턴트 지원에 평균적으로 지출된 비용은 컨소시엄 프로젝트 7,500 유로, 단일 수혜자 프로젝트 2,000 유로, EIC Accelerator는 평균 12,000 유로에 달함

- 그러나 컨설팅 업체 이용이 성공을 보장하진 않으며, 우수 평가를 받은 제안서의 74~80%는 외부 도움 없이 작성된 것으로 나타남
- 게다가 우수 평가를 받아도 자금이 부족해 탈락하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로 호라이즌 유럽에서는 우수 제안서 중 30.1%만 자금 지원을 받음

출처

<https://sciencebusiness.net/news/r-d-funding/horizon-europe/data-corner-applying-horizon-too-expensive-many>

③ 집행위, ERC 과학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 공모(5.12)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유럽연구위원회(ERC) 운영 기구인 과학위원회(Scientific Council) 신규 위원을 모집하기 위해 연구 커뮤니티에 후보자 추천을 요청함
 - 과학위원회는 ERC의 과학 지원 전략 및 방법론을 수립하는 독립 운영 기구로, 저명한 과학자 및 학자 22명으로 구성됨(임기 4년, 한 번 연임 가능)
 - 현재 과학위원회 위원의 약 4분의 1이 교체될 예정으로, 다양한 과학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후보자를 추천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됨
 - 자하리에바 집행위원은 과학위원회 독립성과 과학적 리더십이 ERC의 강점이라며, 우수한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함
 - 과학위원회 위원은 후보자 선정 권한을 가진 독립적 상임위원회의 추천을 바탕으로 과학위원회가 임명. 상임위원회는 과학위원회 위원직 갱신을 위한 위원을 선정하고, 미래 위원 후보자 풀을 관리할 것
 - 후보 추천 공모는 잠재적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유럽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선정 절차는 후보 추천(연구기관이 후보자 추천)과 후보자 신청(후보자가 개별적으로 신청)의 두 단계로 구성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추천된 후보자 중 적격자를 선별해 상세 지원서 제출을 요청할 예정이며, 이후 선정 위원회가 심사 후 최종 추천 후보자 명단을 구성하게 됨

출처

https://research-and-innovation.ec.europa.eu/news/all-research-and-innovation-news/european-commission-calls-nominations-erc-scientific-council-2025-05-12_en

4 [SB편딩레이더] 디지털 헬스 관련 주요 공고(5.13)

- EU는 EU4Health, 디지털 유럽, 호라이즌 유럽 등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디지털 헬스 분야에 대한 자금을 지원 중임
 - 2025년 3월 EU는 유럽보건데이터공간(European Health Data Space, EHDS) 규정을 채택해, 보건 데이터를 안전하고 표준화된 방식으로 공유할 수 있는 디지털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음
 - EHDS는 개인 건강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고, 동시에 연구혁신, 정책 수립 등 데이터의 2차적 활용을 촉진하면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전략

호라이즌 유럽 - AI 기반 디지털 헬스 연구 활성화 지원

- 개요: 인공지능 등 혁신적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건강 연구 촉진
- 공모: 2025년 5월 22일 공고 개시 예정, 9월 18일 마감 예정
- 예산: 약 3,500만 유로

VR Health Champions (EU 지역개발기금 공동 지원)

- 개요: XR(확장현실) 기술 기반 헬스케어 솔루션의 시장 진입 가속화
- 공모: 2025년 6월 23일 마감
- 예산: 총 780만 유로, 참여 기업당 최대 4만 유로 지원

바르셀로나 시의회 - La Caixa재단 디지털 헬스 혁신 프로젝트

- 개요: 디지털 헬스케어, 첨단치료, 지역사회 건강 관련 혁신 프로젝트 지원
- 공모: 2025년 5월 19일 마감

한국 IITP-AI Singapore 딥페이크 탐지 공동연구 지원

- 개요: 고정확도, 확장 가능한 멀티모달 AI 기반 딥페이크 탐지 기술 개발 공동 과제
- 공모: 2025년 6월 18일 마감
- 예산: 최대 S\$150만 (싱가포르), ₩16억 (한국), 연구 기간 최대 3년

출처 <https://sciencebusiness.net/news/r-d-funding/weeks-round-digital-health-calls>

3. EU 연구성과

① [성공사례] 전 세계 해양 과학을 위한 첨단 연구선 플랫폼

- EU는 EurofleetsPlus 프로젝트를 통해 27척의 첨단 연구선을 유럽 및 국제 연구자들에게 개방
 - 해양 연구는 지구와 기후변화 이해에 필수적이나, 고비용·고위험·고난이도인 경우가 많음
 - EU는 동 프로젝트를 통해 전 세계 과학자들에게 최첨단 연구선을 제공하여 해양 연구의 속도를 높이고자 함
 -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Fitzgerald는 프로젝트의 주요 목표 중 하나가 유럽 연구선 함대가 하나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는 경제성, 효율성 및 환경 지속 가능성을 증진한다고 설명
 - 프로젝트는 유럽 전역과 국제 파트너에게 개방된 플랫폼을 구축하여 북극, 대서양, 태평양, 남극 등을 항해하는 다양한 선박의 실험 슬롯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원격조종 잠수정 7대와 자율 수중 선박 5대 등 전문 장비도 제공
 - 또한 연구자가 원격으로 실험을 의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에 가지 않고도 진행 과정을 감독하고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어 비용과 환경적 영향을 절감
- 프로젝트는 신진 연구자의 연구 수행을 지원했으며, 해양 연구선 커뮤니티의 연계를 강화하는 데에 크게 기여
 - 프로젝트는 접수된 총 68건의 제안서 중 28건의 과학 캠페인에 대해 268일간의 선박 운항을 지원. 315명의 지원자가 승선했으며 그 중 3분의 1은 신진 연구자였음

- Fitzgerald는 책임 연구원들에게 신진 연구원들을 탑승시킬 것을 장려했음을 밝힘
- 주요 성과로는 아조레스 제도의 취약 생태계 지도화, 아일랜드 서해안 미탐사 지역 지진 탐사, 그린란드 상어 실시간 추적 등이 포함됨
- 항해 중 수집된 모든 데이터는 유럽 해양 연구 가상 인프라(European Virtual Infrastructure in Ocean Research)를 통해 공개되어 연구 공유에 기여
- EurofleetsPlus 프로젝트는 Eurofleets 및 EUROFLEETS2 프로젝트의 후속 사업으로, “유럽 연구선 커뮤니티가 진정으로 하나로 뭉쳤다”라고 Fitzgerald는 평가함
- 동 프로젝트는 현재 호라이즌 유럽의 지원을 받는 AQUARIUS 프로젝트로 이어졌으며, AQUARIUS는 해양·담수 연구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을 확장하고 있음

EurofleetstPlus 프로젝트

- 기간 : 2019.02 - 2023.10
- 예산 : 약 1,000만 유로 (EU 100% 지원)
- 총괄 : MARINE INSTITUTE (아일랜드)

출처

<https://projects.research-and-innovation.ec.europa.eu/en/projects/success-stories/all/dial-ship-worldwide-fleet-ocean-science>

② [연구모음] 지속가능하고 기후 탄력적인 양식업 및 수산업

- 인구 증가로 수산물 식품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산업 및 양식업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최대 수산물 시장인 EU는 지속 가능한 수산업 전환과 수중 생태계 보존을 주도하고 있음
 - 해양 및 담수 환경에서 공급되는 식품은 유럽의 식량 및 영양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EU는 이를 미래에도 유지하기 위해 수산업과 양식업에 대한 연구혁신을 지원하고 있음
 - 양식업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식품 생산 부문 중 하나이자 유럽 그린딜의 핵심 축임. 또한 공동어업정책(CFP)은 건강하고 생산적인 해양 생태계를 보존함으로써 어업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장려
- 연구 모음은 세계 식량과 영양 안보에 있어 수산 식품의 중요성과 수생 생태계 기반 식량 생산의 잠재력을 조명
 - 소개된 프로젝트들은 EU의 CFP 목표와 식품 연구혁신 정책 프레임워크 Food 2030과도 부합하며, 건강한 식단, 기후 회복력, 환경 지속 가능성, 순환성, 자원 효율성을 우선 과제로 둠
 - 주요 프로젝트는 어획 및 양식업 전반에 걸친 기술개발, 어업 관리를 위한 디지털 플랫폼 개발, 자연 생태계 기반 접근법 적용 등을 다룸

AQUAIMPACT 프로젝트

- 기간 : 2019.01 - 2023.12
- 예산 : 약 673만 유로 (EU 약 615만 유로 지원)
- 총괄 : LUONNONVARAKESKUS (핀란드)

NEWTECHAQUA 프로젝트

- 기간 : 2020.01 - 2023.12
- 예산 : 약 672만 유로 (EU 약 599만 유로 지원)
- 총괄 : ALMA MATER STUDIORUM - UNIVERSITA DI BOLOGNA (이탈리아)

AQUAVITAE 프로젝트

- 기간 : 2019.06 - 2023.11
- 예산 : 약 875만 유로 (EU 약 800만 유로 지원)
- 총괄 : NOFIMA AS (노르웨이)

MEESO 프로젝트

- 기간 : 2019.09 - 2024.02
- 예산 : 약 640만 유로 (EU 100% 지원)
- 총괄 : HAVFORSKNINGSINSTITUTTET (노르웨이)

SUMMER 프로젝트

- 기간 : 2019.09 - 2024.08
- 예산 : 약 662만 유로 (EU 약 648만 유로 지원)
- 총괄 : FUNDACION AZTI - AZTI FUNDAZIOA (스페인)

ASTRAL 프로젝트

- 기간 : 2020.09 - 2024.09
- 예산 : 약 794만 유로 (EU 100% 지원)
- 총괄 : NORCE NORWEGIAN RESEARCH CENTRE AS (노르웨이)

SEAwise 프로젝트

- 기간 : 2021.10 - 2025.09
- 예산 : 약 804만 유로 (EU 100% 지원)
- 총괄 : DANMARKS TEKNISKE UNIVERSITET (덴마크)

BLUEBIO 프로젝트

- 기간 : 2018.12 - 2024.05
- 예산 : 약 2,555만 유로 (EU 약 801만 유로 지원)
- 총괄 : NORGES FORSKNINGSRAD (노르웨이)

FISH-X 프로젝트

- 기간 : 2022.06 - 2025.05
- 예산 : 약 603만 유로 (EU 약 455만 유로 지원)
- 총괄 : TRANSMARTECH SCHLESWIG-HOLSTEIN GMBH (독일)

EcoScope 프로젝트

- 기간 : 2021.09 - 2025.08
- 예산 : 약 792만 유로 (EU 100% 지원)
- 총괄 : ARISTOTELIO PANEPISTIMIO THESSALONIKIS (그리스)

출처

<https://cordis.europa.eu/article/id/457663-research-and-innovation-for-sustainable-climate-resilient-aquaculture-and-fisheries>